제3장. 한국 성리학 연구

안유경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4년 한국유교문화 레포트>의 한 부분으로, 2014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중에서 <한국 성리학>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와 등재지 후보 등 학술지에 기재된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발표내용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논문은 총 52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논문의 연구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주요 논문에 대한 분석과 평가한 뒤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와 전망을 기술한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①퇴계의 논문이 20편, ②율곡의 논문이 11편, ③이항의 논문이 2편, ④조광조의 논문이 2편, ⑤기타의 논문이 17편이다. 퇴계와 율곡이 전체 논문의 60%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퇴계가 50% 이상으로 차지하여 독보적 모습을 보인다. 기타의 논문에서는 조호익(1편), 오희상(1편), 송시열(1편), 김창협(1편), 성혼(1편), 황준량(1편), 한원진(1편), 윤휴(1편), 임성주(1편), 윤증(1편), 성문준(1편), 김굉필(1편), 장계향(1편), 등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의 사상이 골고루 연구되고 있다. 또한 두 인물을 비교한 논문으로는 ①이황과 정도전의 비교 논문(1편), 이항로・기정진・이진상의 비교논문(1편), 유원지와 정시한의 비교논문(1편), 퇴계학파의 주요인물과 율곡학파이 주요인물의 비교연구(1편) 등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퇴계와 율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미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자들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퇴계 이황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희복	「퇴계의 道學과 經世論」	『한국철학논집』41	한국철학사연구회
2	고재석	「퇴계의 '미발'관 연구」	『동양철학』42	한국동양철학회
3	김백희	「조선전기 유학의 윤리적 주체성 형성과 변형-정도전과 이황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74	한국동서철학회
4	김상현	「이황의 격물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주체·객체 상호 작용으로서의 인식론	『철학논총』75	새한철학회
5	김의성	「同一典據에 대한 퇴계·고봉 해석의 차이 연구」	『동양철학』42	한국동양철학회
6	선병삼	「퇴계 이황 사단칠정 소종래 구분의 객관 타당성 검증」	『동양철학연구』79	동양철학연구회
7	선병삼	「퇴계의 四七論에 대한 율곡이 비판은 정당한가?」	『유교사상문화연구』55	한국유교학회
8	심도희	「주자학에서 본 퇴계와 고봉이 사단칠정론」	『유교사상문화연구』57	한국유교학회
9	유원기	「이황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재고찰」	『유교문화연구』21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10	이관호	「퇴계 이황의 天卽理와 스피노자의 實體一元論 비교」	『퇴계학보』135	퇴계학연구원
11	이영호	「유학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조선주자학과 퇴계학의 의미」	『양명학』39	한국양명학회
12	이원진	「퇴계의 圖說과 라깡의 위상학」	『퇴계학논집』15	영남퇴계학연구원
13	이정환	「퇴계 天命圖說과 天命圖에 대한 철학적·도상적 재검토」	『퇴계학보』135	퇴계학연구원
14	이치억	「퇴계 爲己之學의 특성과 그 정신의 전승」	『퇴계학논집』14	영남퇴계학연구원
15	전병욱	「퇴계와 율곡의 心統性情說」	『율곡학연구』29	율곡연구원
16	전현희	「퇴계와 율곡의 인심도심설-주자 心論의 한국적 전개」	『한국철학논집』41	한국철학사연구회
17	조첨첨, 최영진	「퇴계와 고봉 사단칠정논변에 있어 '四端無不善'과 '四端有善惡'의 충돌」	『양명학』38	한국양명학회
18	최영성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학문에 대한 퇴계 이황의 평가-성리설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42	한국철학사연구회

19	김상현	「이황 철학의 리 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理發, 理動, 理到說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경북대학교
20	황상희	「퇴계의 天觀을 중심으로 한 性理說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퇴계 이황과 관련된 논문은 총 20편이다. 퇴계와 관련된 논문의 주류는 사단칠정론에 관한 내용이다. 사단칠정에서는 퇴계와 고봉의 비교 논문, 사단과 칠정의 소종래에 대한 구분이 타당한지의 문제, 퇴계의 이론에 대한 율곡의 비판이 정당한지 등에 관한 여러 논문이 있다. 또한 퇴계의 이기론과 심성론, 경세론, 수양론 등 다양한 연구 내용이 있으며, 도설에 관한 내용이나 천관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있다. 퇴계의 미발관을 비롯하여, 이발・이동・이도설 등 퇴계의 리 중시적 사고의 논문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2) 율곡 이이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경호	「율곡 이이의 사단과 칠정-規範性의 원천에 대한성찰」	『유교문화연구』 21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	김근호	「19세기 心論의 主宰 문제로 본 율곡학의 양상-임헌회・송병선・이항로・기정진 등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28	율곡학연구원
3	김낙진	「17세기 퇴계학파의 율곡 이이와 율곡학 인식」	『율곡학연구』28	율곡연구원
4	김세정	「율곡학을 통해 본 인간과 자연의 소통과 공생의 해법」	『율곡학연구』28	율곡연구원
5	김승영	「율곡학파의 '理發' 이해에 나타난 방법과 특징-이이 직계 계열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1	한국동서철학회
6	김창경	「마음의 선악을 결정하는 意의 운용-16,7세기 기호유학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4	한국동서철학회
7	손흥철	「율곡 理通氣局論의 內包와 外延」	『율곡학연구』29	율곡연구원
8	이상익	「율곡학파의 '以心使心'에 대한 해석」	『율곡학연구』28	율곡연구원
9	이천승	「18세기 호락논변에 끼친 율곡학의 영향-'理通氣局說'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28	율곡연구원
10	이향준	「리(理), 사물, 사건-이이의 경우」	『율곡학연구』29	율곡연구원

11	정연수	「血氣와 心氣에 관한 율곡학파 氣質變化論 연구-율곡, 외암, 남당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58	한국유교학회

율곡 이이와 관련된 논문은 총 11편이다. 그 중에서 율곡의 심론에 관한 논문이 대세를 차지한다. 임헌회・송병선・이항로・기정진을 중심으로 심의 주재부분을 다룬 논문이 있고, 율곡의 理發에 대한 해석을 율곡학파에서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율곡의 인심도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意의 문제를 다룬 논문, 율곡의 '이통기국'에 대한 논문, 그리고 그것이 18세기 호락논쟁에 끼친 영향 등을 다룬 논문이 있다. 또한 율곡의 기질변화론을 율곡・남당・외암과 연결시켜 그 이론적 차이를 확인하고 血氣와 心氣에 관한 율곡학파의 이론을 정리한 논문도 있다.

3) 일재 이항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경호	「일재 이항과 고봉 기대승의 교류와 논쟁에 대한 재독해-1560년대를 전후한 호남유학의 철학적 문제의식」	『율곡학연구』29	율곡연구원
2	김범수	「일재 이항의 이기론에 대한 후학들의 오해」	『유학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일재 이항에 관한 논문은 모두 2편이다. 이항이 생소한 인물인데 비해 두 편의 논문은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논문은 이기론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이기론에 대한 후학들의 잘못된 평가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봉과의 논쟁을 재해석함으로 호남유학의 철학적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4) 정암 조광조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최정묵	「정암 조광조의 至治主義, 그 立論의 근거와 실현 방법」	『동서철학연구』74	한국동서철학회
2	유현주	「정암 조광조의 至治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정암 조광조에 관한 논문은 모두 2편이다. 대부분의 논문이 조광조의 '지치'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조광조의 지치주의는 무엇에 근거하며, 그 실현방법은 무엇인지가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5)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권상우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의 신뢰철학」	『민족문화논총』 5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	김기주	「사단칠정논쟁으로부터 心卽理로-사단칠정논쟁에 대한 화서・노사・한주의 결론」	『퇴계학논집』15	영남퇴계학연구원
3	김병목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의 성리설에서 主宰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56	한국유교학회
4	김승영	「송시열의 이황 '理發' 비판에 대한 고찰」	『유학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김우형	「김창협의 지각론과 퇴율절충론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知覺과 知의 분리에 따른 도덕 심리학적 견해」	『한국철학논집』 40	한국철학사연구회
6	김우형	「우계 성혼의 퇴율절충론의 철학적 함의-理氣一發說의 존재론적 해석」	『유교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김종석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의 사상과 퇴계학 계승 양상」	『퇴계학보』135	퇴계학연구원
8	민황기	「남당 한원진의 『中庸』觀과 인성론적 근거」	『유학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안유경	「17-18세기 퇴계학파의 「心統性情圖」 해석에 관한 연구- 拙齋 柳元之와 愚潭 丁時翰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55	한국유교학회
10	안유경	「17-18세기 조선후기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辨證」	『유교문화연구』 21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11	이기동, 함현찬	「윤휴의 格物致知 이해」	『양명학』37	한국양명학회
12	이명심	「논문 임성주의 一原的 심성론 연구」	『한국철학논집』 41	한국철학사연구회
13	이영자	「명재 윤증의 율곡 성리학의 수용과 變轉」	『한국철학논집』 42	한국철학사연구회
14	이향준	「未發心體: 마지막 어휘, 혹은 정신적 경련?-18세기 한국유학의 딜레마」	『유학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5	이형성	「창랑(滄浪) 성문준(成文濬)의 태극・음양・오행의 연관성 一攷	『한국사상과 문화』75	한국사상문화학회
16	최영성	「한국유학사에서의 김굉필의 위상」	『한국철학논집』 41	한국철학사연구회

17	최재목	「성인을 꿈꾼 조선시대 여성철학자 장계향(張桂香)-한국 '敬'사상의 여성적 실천에 대한 試論」	『양명학』37	한국양명학회

기타에 분류된 논문은 모두 17편이다. 기타에서는 주로 조선후기 여러 성리학자들의 학설이 골고루 소개되어 있다. 내용을 소개하면 조호익의 신뢰철학, 오희상의 성리설에서 주재의 의미, 송시열의 퇴계 理發에 대한 비판, 김창협의 지각에 따른 도덕심리학적 견해, 성혼의 퇴율절충론에서의 철학적 의미, 황준량의 사상, 한원진의 중용관, 윤휴의 격물치지에 대한 이해, 임성주의 일원적 심성론, 윤증의 율곡 성리학의 수용과 변전, 성문준의 태극・음양・오행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장계양의 '경'사상 등이 있다. 그리고 퇴계의 사단칠정논쟁에서 '심즉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화서・노사・한주와 연결시켜 정리하고 있으며, 17-18세기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사단칠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 등이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에서는 ①이기론에 관한 논문이 10편, ②심성론에 관한 논문이 17편, ③사단칠정론에 관한 논문이 12편, ④인식론에 관한 논문이 3편, ⑤수양과 경세론에 관한 논문이 6편, ⑥기타에 해당하는 논문이 4편 있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성리학의 범주 범위에 맞춰 이기론, 심성론, 인식론, 경세와 수양론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사단칠정론에 관한 논문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은 심성론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단칠정에 관한 논문을 포함하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1)이기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경호	「일재 이항과 고봉 기대승의 교류와 논쟁에 대한 재독해-1560년대를 전후한 호남유학의 철학적 문제의식」	『율곡학연구』29	율곡연구원
2	김범수	「일재 이항의 이기론에 대한 후학들의 오해」	『유학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손흥철	「율곡 理通氣局論의 內包와 外延」	『율곡학연구』29	율곡연구원

4	이관호	「퇴계 이황의 天卽理와 스피노자의 實體一元論 비교」	『퇴계학보』135	퇴계학연구원
5	이영자	명재 윤증의 율곡 성리학의 수용과 變轉」	『한국철학논집』42	한국철학사연구회
6	이천승	「18세기 호락논변에 끼친 율곡학의 영향-'理通氣局說'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28	율곡연구원
7	이향준	「리(理), 사물, 사건-이이의 경우」	『율곡학연구』29	율곡연구원
8	이형성	「창랑(滄浪) 성문준(成文濬)의 태극・음양・오행의 연관성 一攷	『한국사상과 문화』75	한국사상문화학회
9	황상희	「퇴계의 天觀을 중심으로 한 性理說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10	김상현	「이황 철학의 리 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理發, 理動, 理到說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경북대학교

이기론에 관한 논문은 모두 10편이다. 그 중에서도 율곡의 '이통기국'의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통기국'이 호락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율곡학파에서 '이통기국'의 해석은 어떠했는지를 고찰한다. 이기론에서는 태극과 음양・오행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이 있고, 천관을 중심으로 성리설을 연구한 논문, 퇴계의 '성즉리'를 스피노자의 '실체일원론'과 비교한 논문도 있다.

2) 심성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권상우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의 신뢰철학」	『민족문화논총』5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	고재석	「퇴계의 '미발'관 연구」	『동양철학』42	한국동양철학회
3	김근호	「19세기 心論의 主宰 문제로 본 율곡학의 양상-임헌회・송병선・이항로・기정진 등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28	율곡학연구원
4	김백희	조선전기 유학의 윤리적 주체성 형성과 변형-정도전과 이황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74	한국동서철학회
5	김병목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의 성리설에서 主宰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56	한국유교학회
6	김창경	「마음의 선악을 결정하는 意의 운용-16,7세기 기호유학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74	한국동서철학회
7	민황기	「남당 한원진의 『中庸』觀과	『유학연구』31	충남대학교

		인성론적 근거」		유학연구소
8	전병욱	「퇴계와 율곡의 心統性情說」	『율곡학연구』29	율곡연구원
9	안유경	「17-18세기 퇴계학파의 「心統性情圖」 해석에 관한 연구- 拙齋 柳元之와 愚潭 丁時翰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 연구』55	한국유교학회
10	이명심	「논문 임성주의 一原的 심성론 연구」	『한국철학논집』 41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이상익	「율곡학파의 '以心使心'에 대한 해석」	『율곡학연구』28	율곡연구원
12	이원진	「퇴계의 圖說과 라깡의 위상학」	『퇴계학논집』15	영남퇴계학연구원
13	이정환	「퇴계 天命圖說과 天命圖에 대한 철학적・도상적 재검토」	『퇴계학보』135	퇴계학연구원
14	이향준	「未發心體: 마지막 어휘, 혹은 정신적 경련?-18세기 한국유학의 딜레마」	『유학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5	전현희	「퇴계와 율곡의 인심도심설-주자 心論의 한국적 전개」	『한국철학논집』 41	한국철학사연구회
16	정연수	「血氣와 心氣에 관한 율곡학파 氣質變化論 연구-율곡, 외암, 남당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 연구』58	한국유교학회
17	최영성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학문에 대한 퇴계 이황의 평가-성리설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42	한국철학사연구회

심성론에 관한 논문은 모두 17편이다. 그 중에서 주재에 관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논문의 내용으로는 미발에 관한 연구, 주재로 보는 율곡학의 양상, 오희상의 성리설에서의 주재의 의미, 마음에서 선악을 결정하는 意의 역할, 心統性情說에 관한 연구, 퇴계 「心統性情圖」에 관한 퇴계학파의 해석에 관한 연구, 임성주의 일원적 심성론, 퇴계와 율곡의 인심도심설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율곡・외암・남당을 중심으로 율곡의 기질변화론을 율곡학파에서는 어떻게 전개하였는지를 살펴본 논문이 있고, 퇴계의 도설과 라깡의 위상학을 비교한 논문도 있다.

3) 사단칠정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경호	「율곡 이이의 사단과 칠정-規範性의 원천에 대한성찰」	『유교문화연구』21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	김기주	「사단칠정논쟁으로부터 心卽理로-사단칠정논쟁에 대한 화서・노사・한주의 결론」	『퇴계학논집』15	영남퇴계학연구원
3	김승영	「송시열의 이황 '理發' 비판에 대한 고찰」	『유학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김승영	「율곡학파의 '理發' 이해에 나타난 방법과 특징-이이 직계 계열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71	한국동서철학회
5	김우형	「우계 성혼의 퇴율절충론의 철학적 함의-理氣一發說의 존재론적 해석」	『유교연구』3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	김의성	「同一典據에 대한 퇴계・고봉 해석의 차이 연구」	『동양철학』42	한국동양철학회
7	선병삼	「퇴계 이황 사단칠정 소종래 구분의 객관 타당성 검증」	『동양철학연구』79	동양철학연구회
8	선병삼	「퇴계의 四七論에 대한 율곡이 비판은 정당한가?」	『유교사상문화연구』55	한국유교학회
9	심도희	「주자학에서 본 퇴계와 고봉이 사단칠정론」	『유교사상문화연구』57	한국유교학회
10	안유경	「17-18세기 조선후기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辨證」	『유교문화연구』21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11	유원기	「이황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재고찰」	『유교문화연구』21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12	조첨첨, 최영진	「퇴계와 고봉 사단칠정논변에 있어 '四端無不善'과 '四端有善惡'의 충돌」	『양명학』38	한국양명학회

사단칠정론에 관한 논문은 모두 12편이다. 퇴계의 사단칠정론에 관한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퇴계와 고봉과의 비교논문도 일부를 차지한다. 퇴계와 고봉 두 사람의 동일전거에 대한 대비적 고찰을 통해 이론적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율곡의 사단칠정에 관한 연구, 성혼의 사단칠정에서 理氣一發說에 대한 해석, 송시열의 퇴계 사단칠정에서의 理發에 대한 비판, 퇴계 사단칠정론에서 율곡의 비판은 정당한가에 대한 연구, 퇴계 사단칠정론에 대한 소종래의 구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에서는 퇴계와 율곡의 사단칠정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그 해석상의 차이를 밝힌 연구,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론에서 '四端無不善'과 '四端有善惡'이 어떻게 충돌하였는지를 다룬 논문 등

이 있는데, 여기서는 퇴계가 갖는 논리적·이론적 모순을 정확히 밝혀내고 있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상현	「이황의 격물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주체·객체 상호 작용으로서의 인식론	『철학논총』75	새한철학회
2	김우형	「김창협의 지각론과 퇴율절충론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知覺과 知의 분리에 따른 도덕 심리학적 견해」	『한국철학논집』40	한국철학사연구회
3	이기동, 함현찬	「윤휴의 格物致知 이해」	『양명학』37	한국양명학회

4) 인식론

인식론에 관한 논문은 모두 3편이다. 여기서는 격물치지에 관한 내용을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내용으로는 퇴계의 격물에 관한 해석, 김창협의 지각에 관한 해석, 윤휴의 격물치지에 관한 해석 등이 있다. 김창협의 지각론은 퇴계와 율곡의 지각론을 절충한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며 知覺과 知의 분리에 따른 도덕 심리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5) 수양과 경세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희복	「퇴계의 道學과 經世論」	『한국철학논집』41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종석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의 사상과 퇴계학 계승 양상」	『퇴계학보』135	퇴계학연구원
3	유현주	「정암 조광조의 至治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4	이치억	「퇴계 爲己之學의 특성과 그 정신의 전승」	『퇴계학논집』14	영남퇴계학연구원
5	최재목	「성인을 꿈꾼 조선시대 여성철학자 장계향(張桂香)-한국 '敬'사상의 여성적 실천에 대한 試論」	『양명학』37	한국양명학회
6	최정묵	「정암 조광조의 至治主義, 그 立論의 근거와 실현 방법」	『동서철학연구』74	한국동서철학회

수양과 경세론에 관한 논문은 모두 6편이다. 수양과 경세론에서도 퇴계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조광조의 至治에 관한 논문도 돋보인다. 그 내용으로는 퇴계의 경세론, 황준량의 사상을 경세론적 관점에서 퇴계학을 계승한 차원에서

정리한 논문, 퇴계의 '爲己之學'의 특성과 그 정신의 후대로의 전승, 장계양의 '敬'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면모, 조광조의 지치주의의 입론근거와 그 실현방법에 관한 논문 등이 있다.

6)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세정	「율곡학을 통해 본 인간과 자연의 소통과 공생의 해법」	『율곡학연구』28	율곡연구원
2	김낙진	「17세기 퇴계학파의 율곡 이이와 율곡학 인식」	『율곡학연구』28	율곡연구원
3	이영호	「유학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조선주자학과 퇴계학의 의미」	『양명학』39	한국양명학회
4	최영성	「한국유학사에서의 김굉필의 위상」	『한국철학논집』41	한국철학사연구회

기타의 논문은 모두 4편이다. 여기서는 율곡의 사상을 통해 본 인간과 자연의 소통과 공생의 방법을 다룬 논문, 유학사적 관점에서 본 조선주자학과 퇴계학의 의미, 한국유학사에서 김굉필의 위상 등을 다룬 논문이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1) 우수 논문 평가

①김기주의 「사단칠정논쟁으로부터 心卽理로-사단칠정논쟁에 대한 화서·노사·한주의 결론」은 하서(이항로)·노사(기정진)·한주(이진상) 세 사람이 보여준 '심즉리'를 사단칠정논쟁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한 것이다. 논자는 퇴계와 고봉에 의해 시작된 사단칠정론이 조선후기 300년의 시간 속에서 형식을 달리하며 지속되었고 그 결론이 마침내 '심즉리'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물론 퇴계가 직접 '심즉리'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理發이나 사단과 칠정의 질적인 구분을 통해 도덕정감의 위치를 확정함으로써 이미 이론적으로 '심즉리'에 근접해 있었으며, 한주는 이러한 퇴계의 문제의식을 철저히 관철시켜 '심즉리'를 표방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화서와 노사는 직접 '심즉리'를 주장한 적은 없지만, 그들의 이론이 고봉과 율곡의 '氣發理乘一途說'과 '心是氣'의 이론체계에 내재된 문제, 즉 리(성)의 실현여부가 기(기의 순수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심의 주리적 측면을 중시하고 기에 대한 리의 절대적 주재를 강조하는 점에서 '심즉리'로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칠정과 그 문제의식을 통해 19세기에 등장한 '심즉리'의 흐름을 재구성해 볼 때, 조선후기 300년 성리학의 전개는 하나의 일

관된 지향을 보여주는데, 그 지향은 다름 아닌 도덕의 실천적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단칠정논쟁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도덕실천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의 결과는 '심즉리'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 논문은 사단칠정논쟁과 '심즉리'를 연결시켜 사단칠정논쟁의 문제의식이 결국 '심즉리'로 귀결되었음을 밝힌 것으로써 논문의 논리적 전개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② 조첨첨・최영진의 「퇴계와 고봉 사단칠정논변에 있어 '四端無不善'과 '四端有善惡'의 충돌」은,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논변이 주자학의 이론체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단불선'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퇴계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정합성을 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논증한 것이다. 고봉의 '사단도 부중절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써 理弱氣强論을 제시하지만, 퇴계는 끝까지 사단의 無不善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견지하는 과정에서 퇴계가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한 부분이 생기는데,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논증해내고, 퇴계의 논리가 갖는 부정합성과 그의 이론과의 차이를 신념과 논리 사이에서 고뇌하는 퇴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퇴계가 논리적인 무리수를 두면서 사단을 리에 영역에 소속시켜 사단의 절대가치성을 확보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로써, 유교적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현실세계에 至善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근거를 이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순선한 본성을 사단으로 구현하고, 그 사단을 현실세계에 실현함으로써 이상사회가 이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논변의 전개과정에서 그들의 이론이 갖는 논리적 정합성을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논자의 지적처럼, 퇴계의 이론이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퇴계 사단칠정론의 윤리적 의의와 그의 한국유학사적 위상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③ 안유경의 「17-18세기 퇴계학파의 「心統性情圖」해석에 관한 연구」는 퇴계학파 내의 졸재(유원지)와 우담(정시한)의 「심통성정도」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퇴계의 「심통성정도」가 17-18세기 조선의 유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고찰한 것이다. 졸재와 우담의 「심통성정도」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퇴계 「심통성정도」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율곡 「심성정도」에 대한 비판이다. 먼저 졸재는 퇴계 「심통성정도」 중에서 하도의 내용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별개의 정으로 둘을 분명히 구분해보며, 또한 율곡의 「심성정도」에 대해서는 정을 선한 정과 악한 정으로 나눈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우담은 퇴계의 「심통성정도」가 전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고 일목요연하며 모든 이치를 다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퇴계 「

심통성정도」 중에서 하도의 내용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이발과 기발로 해석하여 이기호발설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율곡의 「심성정도」에 대해서는 인의예지가 심성의 권역 안에 있어야 하는데 심성의 밖에 두었기 때문에 잘못이며, 측은·수오·사양·시비는 맹자가 인의예지의 단서를 발명하여 이전 성인들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확충한 것인데 「심성정도」에서는 모두 이걸 빼버리고 쓰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졸재와 우담은 퇴계 「심통성정도」 중에서 하도의 내용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이발과 기발로 구분하여 둘을 별개의 정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성학십도』의 제6도인 「심통성정도」의 내용 중에서 하도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들의 성리설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계의 「심통성정도」에 대한 해석은 많으나, 퇴계학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실정인데, 이 논문을 통해 퇴계학파에서 「심통성정도」를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④ 정연수의 「血氣와 心氣에 관한 율곡학파 氣質變化論 연구」는 율곡의 기질변화론을 토대로 외암(이간)과 남당(한원진)의 기질변화론을 살펴봄으로써 율곡학파의 기질변화론이 어떻게 분화되었으며 그 철학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고찰한 것이다. 외암과 남당은 모두 율곡의 기질변화론을 계승하는데, 외암은 血氣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남당은 心氣의 변화에 중점을 둔다. 외암은 육신의 혈기 자체가 아니라 혈기가 용사하는 마음, 즉 기질지심에 대한 마음의 주재성을 강조한다. 기질을 변화시키는 주체인 마음이 변화의 대상인 육신의 혈기를 주재해야 한다는 것이 외암이 말하는 기질변화론의 핵심이다. 기질을 허령한 마음의 본체와 같은 마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외암의 입장에서는 '未發氣質有善惡'을 주장하는 남당의 견해가 결국 '未發心體有善惡'을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다. 반면 남당은 외암처럼 기질을 육신의 문제로 보면서 마음을 허령하다고만 하면 '二心二性'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므로 未發心體가 순선한 측면과 더불어 청탁수박한 기질도 마음의 재질이라고 주장한다. 남당이 '未發氣質有善惡'을 주장한 것은 잠시 미발한다고 해서 타고난 마음의 기질이 단박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일하게 存養해야만이 타고난 마음의 기질까지 온전히 변화된다. 이에 존양하는 공부에 마음을 전일하게 집중하면 마음의 기질도 마음이기 때문에 탁박한 기질을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변화된다는 것이 남당 기질변화론의 핵심이다. 이처럼 율곡 이래로 외암과 남당은 육신의 주재자로서 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율곡의 기질변화론을 계승한 외암과 남당은 기질에 관한 개념적 정의에서부터 공부론에 이르기까지 첨예하게 대립한다. 하지만 血氣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외암과 心氣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남당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율곡의 기질변화론을 논함으로써 다양한 철학적 문제를 발전시켰고, 결과적으로 율곡학파의 기질변화론을 한

층 심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율곡학파의 기질변화론에 관한 연구의 지평을 한층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문으로 평가한다.

⑤ 김승연의 「율곡학파의 '리발' 이해에 나타난 방법과 특징」은 율곡학파 가운데 율곡직계 계열을 중심으로 퇴계의 '이발'을 이해하는 방법과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조선조 유학사는 퇴계가 제기한 '이발'의 문제를 둘러싸고 학파가 성립되고 이러한 '이발' 논변을 통하여 조선 성리학이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 같은 맥락에서 율곡학파는 율곡이 제시한 '氣發理乘一途說'을 견지하는데, 특히 율곡의 직계계열이 그 중심에 있다. 이들은 퇴계가 제시한 '이발'을 虛發로 규정하고 율곡의 기발만을 實發로 정리한다. 김장생은 감정이 발출되는 구조는 '기'라는 지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예를 들면 지각이란 자극과 반응이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자극, '측은해하는 것'=반응이라는 구조로 도식화하면 현상계의 사태에 직면해서 나타나는 것이 곧 기의 작용이고 '기발'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단=인의 근본이 기를 타고 나타나는 구조로 파악해서 사단고 '기발'이라고 주장한다. 송시열은 '이발'을 虛發로 보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태로서의 중절 여부에 자신의 사유를 견지한다. 권상하는 實發은 기가 담당하는 것이고 所發은 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본 율곡의 학설을 전면에 내세워 '이발'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다. 한원진은 '理有動靜'을 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퇴계의 해석이 오류임을 입증한다. 이처럼 율곡학파의 직계계열에서는 퇴계의 '이발'을 부정하고 '기발'만을 인정하는 단일한 노선을 견지한다. 따라서 논자는 이러한 기 중시적 사고가 율곡학파의 직계계열에서 비켜설 수 없는 큰 흐름으로 파악하고 그 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로써 율곡학파 직계계열의 성리학적 특징을 한눈에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나름 의미있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⑥ 안유경의 「17~18세기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辨證」은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에서 전개된 사단칠정론의 흐름을 각각 두 계열로 정리한 것이다. 퇴계학파 내부에서는 율곡이 비판한 호발설을 相須설에 근거해서 주리·주기로 해석할 것을 강조한 우담(정시한)과 대산(이상정)의 학자들과 리의 주체적 발동을 인정함으로써 사단과 칠정의 소종래에 따른 구분을 분명히 할 것을 강조한 갈암(이현일)과 청대(권상일)의 학자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理無爲라는 측면에서 '리가 발동한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는 있지만 사단과 칠정의 소종래를 구분하여 리와 직접 연결되는 사단의 純善性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리의 動靜과 같은 어려운 형이상학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무위한 리가 동정과 같은 작위적 개념으로 설명됨으로써 리와 기의 구분이 무색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율곡학파 내부에서는 퇴계의 설을 주리·주기의 차이로 해석하여 율곡의 설과 절충을 시도한

졸수재(조성기)와 농암(김창협)의 학자들과 퇴계의 주장을 所從來의 다름을 강조하는 호발설이라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한 우암(송시열)과 남당(한원진)의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율곡의 氣發理乘一途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되, 전자는 율곡 理無爲의 주장에서 理의 무력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사단과 칠정을 주리·주기로 구분하여 율곡과 퇴계의 문제의식을 절충하려 하였으며, 후자는 퇴계의 호발설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율곡의 氣發理乘一途의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퇴계를 비판하는데서 더 나아가 율곡의 '七包四'설마저도 문제를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퇴계학파든 율곡학파든 사단칠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기질을 배제시키고 사단의 순선을 확보하려는 측면과 사단이라고 해도 기질 속에서 이해하려는 측면이라는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따라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사단칠정론에 대한 해석은 퇴계와 율곡의 철학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논문이 가져야 할 논지의 의미가 약하고 또한 8명이라는 많은 학자들의 사단칠정의 특징을 열거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자 개개인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미약한 점도 없지 않으나,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사단칠정론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을 명확히 전개함으로써 이들의 특징을 분명히 드러낸 장점이 인정된다.

2) 문제 논문 비평

①심도희의 「주자학에서 본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론」은 퇴계와 고봉의 이론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주자학 자체로 돌아가서 그들 이론의 타당성을 밝혀내고 있다. 즉 논자는 "고봉은 주자학의 기본 명제인 '이기'의 불가분리성을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단과 칠정의 범주에 대한 분석과 성에 대한 이해가 주자학의 심성론 체계와 부합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퇴계는 같은 정인 사단과 칠정을 굳이 나누어 보고 그것의 '所從來'·'所指'·'所重'에 따라 각각 리와 기로 분속시킨 것은 주자학과 정합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理氣不離'의 측면에 치중하여 주자이론 중에 '理先氣後'나 '理氣不雜' 등의 측면을 외면한 감이 없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주자는 이기론에서 뿐만 아니라 심성론에서 리와 기는 결코 동등하게 위치지울 수 없고 분명히 先後와 本末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리(성)가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기(심 또는 정)는 통제되거나 조절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던 것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김우형의 「우계 성혼의 퇴율절충론의 철학적 함의-'理氣一發說'의 존재론적 해석」은 우계의 '理氣一發說'에 초점을 맞춰 그의 퇴율절충론이 지니는 철학적 함의를 해명한 것이다. 논자는 "우계가 퇴계의 호발설을 변호한 것은 단

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 호발설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단과 칠정 인심과 도심을 리와 기로 나누어 말한 것도 단지 명목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는 관점에서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우계가 사단과 칠정, 인심과 도심을 명목상 차원에서만 구분하였는지? 퇴계의 호발설을 표면적인 차원에서 지지하였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우계의 이론을 '理氣一發說'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평가자가 보기에, 우계는 먼저 『중용장구』서문에 근거하여 인심과 도심을 분명히 둘로 구분해보았으며, 그 연장선에서 사단과 칠정을 같은 맥락에서 주리·주리의 논리에 따라 理發과 氣發로 상대시켜 보았던 것이다. 때문에 우계의 '理氣一發說'로 규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또한 퇴계의 호발설에 대해서도 "저는 퇴계선생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하는 의혹이 있어 매번 '이기호발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인심도심의 설을 읽고 '或原或生'의 논을 보는데 이르러서는 퇴계의 말과 암암리에 부합되었다. 그래서 흔쾌히 그 쪽으로 향하고서 옛 주장을 버리고 [퇴계를] 따르고자 하니, 이것이 생각을 바꾸게 된 실마리이다"라는 말만 보더라도 퇴계의 호발설을 표면적으로만 지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논자가 우계의 성리학적 특징을 퇴계와 율곡의 상반된 두 성리학적 입장을 절충하고 종합한 '퇴율절충론자'로 규정하려는 것도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③김낙진의 「17세기 퇴계학파의 율곡 이이와 율곡학 인식」은 17세기 퇴계학파에서의 율곡과 율곡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존의 율곡 성리설 위주의 이론적 비판에서 벗어나서 편당성, 경세능력, 문묘종사 등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켜 전개하고 있다. 즉 논자는 "퇴계학파의 율곡비판은 성리이론 자체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기보다는 왜곡된 시선으로 율곡의 이론을 단정한 것"으로 보고, 율곡에 대한 퇴계학파의 비판이 당파성에 따른 왜곡된 것으로 논술하고 있다. 물론 일부 그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퇴계학파의 율곡 성리설 비판을 당파성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구의 「변론이기서」는 율곡의 <우/율 왕복서> 가운데 문제가 되는 24항목을 뽑아 조목조목 비판한 글이다. 이현일이 19항목에 걸쳐 율곡을 비판한 「율곡이씨사단칠정서변」이나, 정시한이 41개 항목에 걸쳐 율곡을 비판한 「사칠변증」 등도 모두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근거하면, 퇴계학파의 율곡비판은 전적으로 당파성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율곡이론에 대한 체계적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논자가 강조한 것처럼, 조선유학자들이 당파적 선입견으로 퇴계와 율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와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당파적 시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철학사상이 바로 조선사회를 바라보는 현

실인식의 토대에 기초하였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음도 아울러 기억해야 한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14년 1년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 등으로 분류하고 그 우수한 논문과 문제 논문 등을 나름대로 평가해 보았다.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도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논문 중에서는 퇴계가 20편, 율곡이 11편, 이항이 2편, 조광조가 2편이며, 그 외에 성혼, 송시열, 김창협, 한원진, 임성주, 오희상, 황준량, 조호익 등의 인물들이 한편씩 발표되었다. 다른 학자들에 비해 퇴계와 율곡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퇴계와 율곡에 관한 비교 논문도 적지 않는데, 예를 들어 퇴계와 고봉을 비교한 논문의 경우 논문제목상 앞에 나오는 인물에 해당하는 퇴계에 분류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퇴계와 율곡의 편수가 많은 점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율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율곡과 다른 인물을 비교할 경우 율곡의 이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율곡에다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주제가 너무 다양하여 크게 이기론, 심성론, 인식론, 수양과 경세론,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사단칠정론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였으며, 그 밖에 미발, 주재, 격물 또는 지각의 문제 등으로 이어졌다. 또한 별도로 시대별 분류는 하지 않았지만 17-18세기에 해당되는 인물연구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2014년 1년 동안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논문이 무려 50여 편이 발표되었다. 물론 이것은 학계의 커다란 연구업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논문의 인물별 분류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퇴계와 율곡의 이론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주제별 분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단칠정론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인 편수를 차지한다. 이것은 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 하는 심성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물성동이 논쟁의 주역인 외암과 남당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학문발전의 차원에서 자칫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퇴계와 율곡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은 그들의 학문적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원전에 대한 해석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볼 때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들 문집에 대한 선행 해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문집에 대한 선행 해석은 아무래도 성리학 이론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2014년 성리학 연구의 현황에 근거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인물들의 성리학 이론들이 보다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